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왜 나는 앉아서 오줌 누고 오빠는 서서 누요?”
 아이가 성(性)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별걸 다 물어본다”거나 “크면 알게 돼”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기 쉽다. 몸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유아기의 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몸에 대한 호기심 커지는 유아기 성교육 어떻게 하나

아우성센터 사이버상담팀장 김현숙씨 강의

야 한다. 하지만 너무 정황하거나 전문적인 설명은 아이가 알아듣지 못할뿐더러 불필요한 호기심을 키워줄 수도 있다. 아이들이 이 시기 배우는 것은 복잡한 성지식이 아니라, 성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 씨는 “부모가 자녀의 질문에 주눅거리거나 부끄러워하면 아이는 성을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점점

때는 부모가 직접 설명을 해주거나 유아 성교육에 관한 책을 함께 읽으며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엄마가 일을 낳았다> (보리)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다섯수레), <엄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달라요> (사계절) 등의 책이 도움이 된다.

유아 상담센터에 부모들이 상담 신청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이의 자위행위다. 김 씨는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감각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하며 성기를 만지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라며 “흔히 만 6살이 지나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서서히 사라진다”고 말한다. 다만 요즘이 있다든지 기저귀 발진 등으로 성기 부위를 긁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또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적 원인이나 너무 딱 끼는 바지 등 육체적 원인 때문에 비롯된 행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위행위를 막기 위해선 클라주나 찰흙놀이 등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놀이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아이와 다양하게 놀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늘어나는 유아 성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부모는 평소 아이에게 다른 사람이 몸을 함부로 만질 때 ‘싫다’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성폭행을 당했을 때 부모에게 꼭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또 남자아이에게는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ia.com



12일 서울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유아들의 눈으로 본 성-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은 이렇게’를 주제로 한 강의를 열었다. 아우성센터 사이버 상담팀장 김현숙 씨가 진행한 이번 강의에는 40여 명의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참석해 유아 성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김현숙 씨는 “생식기를 가리킬 때

정확한 명칭을 쓰는 것이 유아 성교육의 첫 단계”라고 말한다. 6-7세가 되면 ‘음경’, ‘고환’, ‘음순’, ‘자궁’ 등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고, 생식기가 열려 마나 소중한 곳이며 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는지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부모는 아이가 장난스럽게 반응하거나 부끄럽게 느끼지 않도록 진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태도를 취해

생식기의 올바른 명칭 사용하는 것이 첫단계
질문받고 부끄러워하면 성을 감추는 것으로 생각
아이들이 자위행위 할때 놀이로 관심 돌려야

물어보지 않게 된다”며 “아이들이 병 원놀이를 하며 친구의 팬티를 벗겨본 다든지 몸을 만지며 주사 놓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놀이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럴 때는 부모가 함께 놀거나 문을 열어두고 항상 부모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아이가 임신과 출산에 대해 질문할

수설기 남지심이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갈림길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30대 후반의 한 부인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현실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가치 사이에서 늘 갈등을 빚고 있다는 부인은, 그 갈등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일 때는 더욱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면서 저에게 조언을 청했습니다.

어머니의 강요로 유치원 다닐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는 부인은 ‘경쟁에서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라는 등식에 묶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는 피아노 경연대회에 나가 최고의 상을 타는 일을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가치의 전환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만나고부터였답니다. 새로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각종 직업을 가리키고 살아가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인도 세



발 다가가고 있었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 부인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불교 동아리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남학생을 만나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인류의 행복을 고민하는 남학생에게 반한 부인은, 개인의 행복에 탐착하는 사람은 물론 세속적인 가치에 탐착하는 사람을 봐도 마음속으로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불과 중생제도를 실현해 가는 보살의 삶을 꼭 살리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높은 이상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현실은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과는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상주의자인 남편은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못했고,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은 자신은 아이들 우유 걱정을 해야 할 만큼 생활에 쫓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되었는데 자신한테 피아노 다섯 대를 사주고 돌아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눈시울

높은 현실의 벽...佛法대로 살면 최선

계적인 명성을 날리는 피아니스트의 모습을 머리속으로 그리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있었다. 왠지 지겨워 떨어던 학생들이 입을 다물고 잠잠해지자 선생님은 미소 띤 얼굴로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일과 세상 사람들이 완성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 담임선생님은 일요일이면 학생들을 데리고 등산을 같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주로 서울 근교에 있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청계산 관악산 같은 산들로 등산을 가면 선생님은 산에 있는 절에 가서 꼭 점심밥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식사 후에는 스님이 계신 방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차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산사의 정취가 가득 배어있는 방에서 학생들은 차를 마시면서 선생님과의 스님이 나누는 법담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귀 동냥으로 들은 법담 덕분에 학생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 속으로 한 발 한

을 뉘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아이들 교육을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시켜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표현되는 보살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초라하게 위축되어 가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자신들한테 보살의 삶을 살도록 교육시킬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질문을 받은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한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모를 때는 이정표를 보고 가세요. 이정표대로 가다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 해주신 분이 부처님이시니까 그 분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궁극에 이르는 최선이겠지요. 최선의 길을 안다면 그 길을 가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化緣 (02)704-3577

◆건강강좌=부산대 병원과 부산KBS는 27일 오후 2시 부산방송국 공개홀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장수’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부산대 신경과 박규현 교수가 말하는 ‘두뇌 건강의 비법’을 알아본다. (051)240-7786.

◆건강상담=서울노인복지센터는 27일 오전 10시 양방진료실에서 대장 항문 질환에 관한 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대한병원 의료진이 자원봉사를 한다. (02)739-9504

◆어르신 문화예술제=서울 은평노인복지관은 26-28일 오후 1시 복지관에서 어르신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고전무용, 경기민요, 댄스, 기타



연주, 하모니카 연주, 탈춤, 시 낭송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또 2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어린이와 노인의 통합작품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02)385-1351

◆요리 강좌=능인복지관은 2003년 1월 8일~2월 12일 매주 수요일 1시 복지관에서 스테미너 음식 만들기 요리 강좌를 마련한다. 재료비는 회당 1만원. (02)571-2988

◆노인 구직자 모집=화성전선은 60세 전후 남자 노인을 대상으로 생산 보조원 4명을 모집한다. 일주일씩 주야 교대 근무, 숙식 제공. 월 급여는 1백만원.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2통. (02)851-6652

딸 시집보내듯 꽃 선물하는 법

흔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선물이 꽃 선물이다. 꽃 선물을 많이 하면 다음 세상에 예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다. 개업 집 앞의 죽 늘어선 화원들은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의례성, 갈치레, 쓰레기 만들기 등 개인이 주고받는 꽃 선물에도 못 마땅한 구석이 많다. 꽃보다 더 화려한 포장지로 덕지덕지 감싼 꽃은 추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이런 꽃 선물은 어떻게



부머터 국화를 길러 꽃망울이 맺힐 즈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다. 그것이 어렵다면 키우기 쉬운 채송화 같은 것도 좋겠다. 아마도 그때의 기분은 곱게 기른 딸 시집보내는 듯한 심정이 아닐까 싶다. 또 다른 방법으로, 손수 가꾼 혹은 여행길에서 만난 예쁜 꽃을 사진에 담아서 보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꽃을 기르고, 그 꽃을 누군가에게 보낸다는 것, 그 행위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꽃을 닦을 수 있을 것 같다.